

DBpia

이광수의 역사소설 『元曉大師』는 어떻게 읽혔는가?

- 신문연재소설로서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How was read Kwangsoo Lee's historical novel "WONHYODAESA(Great Master Wonhyo)"?

저자 (Authors)	김병길 Kim, Byoung-gill
출처 (Source)	춘원연구학보 , (12), 2018.6, 37-63 (27 pages) Chunwon Research journal , (12), 2018.6, 37-63 (27 pages)
발행처 (Publisher)	춘원연구학회 Chunwon Research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09139
APA Style	김병길 (2018). 이광수의 역사소설 『元曉大師』는 어떻게 읽혔는가?. 춘원연구학보, (12), 37-6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28 16:2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이광수의 역사소설 『元曉大師』는 어떻게 읽혔는가?

-신문연재소설로서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김병길*

차례

1. 선행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2. 식민시기 저널리즘과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담론 지형
3. 로맨스와 활극의 불안한 동거
4. 잃어버린 민족과 새로 찾은 국가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광수의 『元曉大師』에 관한 연구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이 작품에 투영된 이광수의 불교적 세계관과 민족주의 이념에 그 초점이 정향되어 있다. 즉, 『元曉大師』의 성격을 민족서사이자 제국서사, 자전적 서사이자 종교서사로 규정하고, 작가 이광수의 정신적 분열상대지는 그의 불교적 세계관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성과는 추가적인 논의가 무색할 만큼 양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정작 대중서사의 지평에서 『元曉大師』가 어떻게 읽혔는가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빈약하다. 특히 이 작품의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그에 답하고자 한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다. 실상 종교 담론(신라 고신도 사상 및 불교 사상)과 고대 한국어의 어원에 관한 장광설을 걷어내다 보면, 『元曉大師』는 로맨스와 활극이 결합된 멜로드라마 그 이상의 서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연구들은 해방 후 이광수가 창작의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변으로 사후에 쓴 단행본 서문에 간박되어 대중서사로서 이 작품의 진면목을 읽어내는 일을 망기하거나 홀대해왔다. 본고는 이러한 아이러니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신문 연재 역사소설=대중서사’라는 관점 아래 『元曉大師』의 민낯을 직시해보고자 했다.

▶ 주제어: 역사소설, 신문저널리즘, 활극, 로맨스, 멜로드라마

1. 선행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이광수의 『元曉大師』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는 적잖이 축적된 상태다. 그 가운데 비교적 최근의 주목할 만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 작품에 투영된 이광수의 불교적 세계관과 민족주의 이념을 논구하는 데 정향된 것을 볼 수 있다. 새로운 논점 제기를 위해 먼저 이들 주요 논의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첫 번째로 현진건의 『無影塔』 및 이광수의 『元曉大師』를 일본 제국주의의 고대 신라 문화재 복원사업과 연계시켜 작가의 역사의식을 파악한 황중연의 논의를 들 수 있다. 황중연은 해당 연구에서 『元曉大師』의 사료적 전거가 『三國遺事』에 실린 원효 관련 설화들임을 밝히면서 이광수가 이들 설화의 연대기적 서사를 충실하게 좇거나 설화적 모티프를 발전시키지 않은 반면 요석공주와의 사랑과 광대풍의 유랑 같은 금지 위반의 모티프를 담고 있는 설화를 적극 활용한 점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이광수가 도덕적 관습의 속박에서 벗어나 중생 구제의 사명에 투신한 수도자-홍법사의 풍모에 역점을 두어 원효를 이해하고 있으며, 다수의 설화를 날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럼으로써 중생 교화에 나선 과격의 대덕이나 해동 화엄종을 창시한 총명한 고승 이상의 이미지를 원효에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원효는 신라의 국체(國體)와 불가분한 삶을 살았던, 충군애국의 정신을 체현한 신라의 영웅 이미지로 재현될 수 있었다는 것이 황중연의 주장이다. 이처럼 허구에 기대 선택적으로 재구성된 원효 이

야기는 내선일체를 조선인을 위한 거룩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광수의 제국주의적 사고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일제하의 조선인에게 새로운 자기인식의 원천으로 등장한 신라가 『元曉大師』를 통해 조선인들에게 황국신민과의 동일화를 부추기는 감상(感傷)과 환각의 장소로 자리매김 되기에 이른 것이다.¹⁾

황종연이 고대 신라의 제국주의적 복원과 그 대표적인 서사적 재현의 예로 『元曉大師』를 분석했다면, 최주한은 원효를 중심으로 한 애정의 삼각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광수가 전면적인 전향에 도달하게 된 논리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대승보살행에 이르는 원효와 내선일체를 곧 민족구제의 길로 확신했던 이광수의 역설적인 신념 간에 모종의 상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상정한다. 그리고 『元曉大師』의 이야기 구조가 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내선일체에 대한 작자 이광수의 신념임을 구체적인 텍스트 독해를 통해 입증해낸다. 결론적으로 『元曉大師』 창작은 내선일체에서 민족 보존의 길을 찾았던 이광수의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최주한의 주장이다.²⁾ 이 논의는 이광수의 사상적 변천을 설명하기 위한 물적 증거를 『元曉大師』의 서사 분석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이다.

한편 방민호는 『元曉大師』에 재현된 신라 불교의 성격과 그 연계선상에서 피력된 민족정체성의 실체를 논구하는 데 집중한다. 방민호의 논의는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이 이광수의 고대사 인식의 바탕이 되었으며, 그것이 일선동조론의 근거를 제공한 제국담론에 편입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윤영실의 주장³⁾을 대전제로 수용하고 있다. 최남선이 말한 불함문화권을 소극적으로 상정하면 조선인의 민족정체성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되지만, 그 범위를 고

1) 황종연,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라-현진건의 『무영탑』과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3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2) 최주한, 「『원효대사』-과계와 중생구제 보살행의 역설」,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3) 윤영실, 「문학적 글쓰기와 민족의 공간: 조국, 신화세계, 변경」, 『한국현대문학연구』 26, 한국현대문학회, 2008.

대사로 확대하게 될 경우 조선인과 일본인의 민족적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렇게 최남선이 말하는 민족정체성은 자질 변환의 가능성을 내장한 특수한 개념이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민족정체성과 내선일체론이 접속될 시 그 지배적 담론의 하위 담론으로 배치될 위험에 놓이나, 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순간 조선 민족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밝히는 민족주의 담론으로 이내 환원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러한 이해 아래 방민호는 민족 담론과 제국담론을 동시에 내장하고 있는 작품이 『元曉大師』이며, 그와 같은 양면성으로 인해 문맥에 따라 이 작품의 메시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의주시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질 변환의 유동성을 이광수의 민족정체성 담론이 지닌 독특함으로 파악한다.⁴⁾

가장 최근의 연구 중에서는 『元曉大師』에 내재된 이광수의 역사의식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아가 교육적 층위로 쟁점 전환을 시도한 박균섭의 문제제기가 눈길을 끈다. 박균섭은 해당 연구에서 『元曉大師』를 전시동원체제와 식민교육의 성격을 파악하는 텍스트로 상정한 후 그 전체적 지향과 문제를 살핀다. 박균섭의 이 논의는 이광수가 원효를 국가사상에 충실한 인물로 그림으로써 일본주의와 법화경의 결합을 추구한 니치렌주의적 메시지를 환기시켰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 원효가 국가(신라)에 목숨을 걸고 충성했듯이 반도의 조선인들 또한 현재의 국가(일본)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신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논리를 강변한 작품이 바로 『元曉大師』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박균섭은 『元曉大師』가 비록 신라사를 재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시동원체제와 식민교육 이데올로기를 위한 방편적 설정일 뿐이라고 말한다. 태평양전쟁에 당면한 총력전의 상황에서 조선의 청년, 학생들의 죽음이 일본 국민으로 거듭나는 주체의 전환이자 유한한 삶을 초극하는 실존적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이를 보살행으로 두둔, 미화하기 위해 이광수가 원효라는 역사적 인물을 소환하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균섭은 ‘역사소설

4) 방민호, 「이광수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정시학』, 서정시학, 2010년 겨울호.

=내선일체론'이라는 구도 안에서 『元曉大師』의 성격을 판정한다.⁵⁾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작가의 전기적 사실을 참조한 텍스트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주제비평에 집중하고 있다. 『元曉大師』의 성격을 민족서사이자 제국서사, 자전적 서사이자 종교서사로 규정하고, 작가 이광수의 정신적 분열 상내지는 그의 불교적 세계관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 성과는 추가적인 논의가 무색할 만큼 양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정작 대중서사의 지평에서 『元曉大師』가 어떻게 읽혔는가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빈약하다. 특히 이 작품의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그에 답하고자 한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다. 다소 과장컨대 종교 담론(신라 고신도 사상 및 불교 사상)과 고대 한국어의 어원에 관한 장광설을 걷어낸다면, 『元曉大師』는 로맨스와 활극이 결합된 멜로드라마 그 이상의 서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연구들은 해방 후 이광수가 창작의 변으로 사후에 쓴 단행본 서문 「내가 왜 이 작품을 썼나」에 사로잡힌 나머지 대중서사로서 이 작품의 진면목을 읽어내는 일을 방기하거나 홀대해왔다. 달을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생각했거나 물고기를 잡고 나서 통발에만 집착했던 셈이다. 본고는 이러한 아이러니에 대한 문제제기다. ‘신문연재 역사소설=대중서사’라는 관점에서 『元曉大師』의 민낯을 직시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민시기 신문연재 역사소설 일반의 성격과 그 소비 구조에 대한 탐색을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2. 식민시기 저널리즘과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담론 지형

익히 알려진 대로 시간의 분절과 그로부터 파생된 속도에 대한 감각은 곧 근대적인 의식의 소산이었다. 재현이 이루어지는 현재와의 명확한 단절을 전제로 과거의 시간을 압축하여 속도감을 유발시키는 역사소설은 이러한 근대의

5) 박균섭,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통해 본 전시동원체제와 식민교육의 성격」, 『교육문제연구』 46집,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3.

시간의식이 집약된 글쓰기였다. 역사소설과 그것의 대중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신문의 연재소설란은 그와 같은 시간관이 발현된 대표적인 매체였다.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여 역사적 감수성을 덧입힘으로써 신문사는 독자대중을 상상의 세계로 용이하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때 독자는 결코 겪어본 적 없는 과거의 이미지에 자신의 ‘노스탤지어’⁶⁾를 투사하게 되고, 그 향수는 이내 집단의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화할 수 있었다.⁷⁾ 이러한 대체(代替)적 노스탤지어를 신문저널리즘은 역사소설 연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극했다. 잃어버렸거나 부재하며 혹은 동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던 과거의 재구성이라 할 역사소설은 그렇게 탄생했다. 일종의 ‘시물라크르’로 등장한 역사소설은 전통적인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거 이미지의 단순한 재현이 결코 아니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으로 만든 인공물로서 허구의 글쓰기였다.⁸⁾

이러한 역사소설 창작의 초석을 이광수가 놓게 된 배경은 그간 두 방향에서 설명되어 왔다. 첫째는 ‘민족개조론’을 통한 춘원의 현실문제에 대한 발언이 민중의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사실이다. 둘째는 일제 식민당국이 민족주의적인 색채의 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강화했던 탄압과 검열이다. 이러한 앞뒤의 압박을 피하면서 춘원이 문필을 계속해갈 수 있는 자리가 역사물과 역사소설의 창작이었다는 것이다.⁹⁾ 그러나 이는 다분히 춘원이 처한 외적 상황을 우호적으로 고려한 표피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실제 그 속내는 그리 간단치 않다. 애초부터 조선의 과거 역사 자체가 이광수의 문학적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역사소설 창작에서 조선 민족의 원류 또는 원형을 설명되거나 탐

6) 보임은 근대적인 노스탤지어를 신화적 회귀의 불가능성을 자각한 근대인이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로 설명한다. 역사소설의 소비 또한 근대적인 노스탤지어의 발현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Basic Books, 2001, p.8.

7) 아르준 아파두라이, 『고삐 풀린 현대성』,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4, 141쪽.

8) 김병길, 「한국 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 박사논문, 2006, 83쪽.

9) 곽학송박계주, 『春園 李光洙-그의 生涯文學思想』, 삼중당, 1963, 326쪽.

색되기 앞서 그 범주가 한정 혹은 산출되어야 할 대상으로 제기한다. 조선인의 성정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상정한 조선 민족의 정체성에 부합할 증거를 역사의 무대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때문에 역사소설을 쓰는 행위는 곧 민족정체성의 표준적 준거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찬란했던 과거를 당대 혹은 미래의 처너지에서 회복하려는 근대 민족주의 이념의 시나리오로 이광수의 역사소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광수 역사소설에 회고주의적 시선이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사로이 볼 수 없다. 고대 신라를 지극히 낭만적인 세계로 형상화한 그의 첫 장편 역사소설 『麻衣太子』가 그러하거니와, 식민시기 마지막 역사소설 『元曉大師』 역시 일상적 무대가 아닌 주술적이며 신비화된 세계를 담아내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민족정체성 탐구를 역사소설 창작의 과제로 내걸었던 이광수의 경우 이는 불가피한, 어찌 보면 필연적인 설정이었다. 그 기원을 기록적 사실로 설명되지 않는 시공간으로 소급하여 찾고자 했을 때, 민족정체성은 더 이상 발견이 아닌 발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선인의 성정이 것처럼 역사적 문맥에서 이탈된 세계에서 창안될 때, 기원 없는 기원의 삭제와 함께 그가 창안한 민족정체성은 일종의 원형으로 손쉽게 제시될 수 있었을 터다. 결과적으로 이광수의 작품들이 증언하듯이 이상화된 과거 세계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고대사를 배경으로 창작된 당대 역사소설 작품들이 공유한 일반적인 특질이었다. 이는 소실된 민족사의 복원이라는 미명 아래 역사소설에 차용된 허구의 서사가 공적인 역사의 페이지에 등록될 수 있었던 메커니즘을 고스란히 증언한다. 사료적 전거의 빈곤이 그와 같은 사태를 용인한 직접적인 원인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과거의 낭만화, 곧 역사의 통속화가 저널리즘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간과되어서는 곤란하다.¹⁰⁾

역사소설이 저널리즘의 산물이라는 증거는 이광수의 첫 번째 장형의 역사소설이자 조선인 작가의 최초 신문연재 역사소설인 『麻衣太子』의 연재 예고광고

10) 김병길, 앞의 글, 131-132쪽.

에서부터 확인된다. 1926년 4월 26일자 『동아일보』에는 ‘歷史小說’이란 타이틀과 함께 ‘連載小說豫告’라는 제하의 다음과 같은 광고가 게재되었다.

여러분의 만흔 환영을받든 『천안기(天眼記)』는 오래중단되었든 관계로 독자의 흥미가 업슬것뿐아니라 작자의 생각하는바이어서 단연히 중지하고 본보속간을 기념하기위하여 새로지은 역사소설 『마의태자』를 런재하게되었습니다. 마의태자는 신라(新羅)최후의 임금인 경순왕(敬順王)의 왕자로서 신라가 망하게되매 부왕에게최후의 결전을권하다가 뜻지아니함으로 어머니되는이를 모시고 금강산에 드러가 일생을마친이외다. 작자춘원은 그의 웅결한붓을새롭게하여 신라구벽년사적이 멸망하는비극을 좃대로하고 궁예(弓裔) 현훤(甄萱)왕건(王建)등의 절세영웅의 삼각전(三角戰)을 여실히 그려냈습니다. 소설인동시에 역사이오 비극인 동시에 활극인 이새작품이 만천하독자에 공전(空前)의 환영을 바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¹¹⁾

위 광고는 역사소설과 신문저널리즘 간의 친연성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우선 편집자가 장기간 연재 중단되었던 작품을 다시 재개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연재하기로 결정한 것이 독자의 흥미, 곧 오락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라 밝힌 점이다. 신문연재소설의 최고 미덕이 독자에게 재미를 주는 데 있다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표명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연재작이 앞서 중단된 작품의 작가, 곧 이광수의 역사소설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역사소설이 그간의 연재 공백을 충실히 메워줄 만큼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리라는 확신이 이에 내재해 있다. 셋째로 새로운 연재작을 멸망사로서 비극이자 영웅담이며 활극이라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역사소설에 붙은 이러한 수사들은 이후 신문연재 역사소설 창작의 가이드라인이자 길라잡이가 된다. 이렇듯 신문연재 역사소설은 그 탄생 과정에서 선정적인 문구와 함께 매력적

11) 「連載小說豫告 歷史小說 『麻衣太子』, 『동아일보』, 1926.4.26.

인 대중독물로 소개되었다. 그리고 그 같은 저널리즘의 광고 전략은 『元曉大師』가 연재된 1940년대까지 계속된다.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인 1930년대 말에서 해방 직전까지 역사소설은 전시동원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담론과 함께 예고되고 광고되었다. 일제의 대동아공영론을 선전하는 나팔수로서 『매일신보』의 연재소설들이 열을 올리던 때, 역사소설 또한 예외 없이 제국주의적 역사 해석의 무대로 차출된 것이다. 그 맹이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이광수의 작품들에서부터 감지된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異次頓의 死』다. 이 작품의 연재광고에는 “신라 영웅의 죽음을 중시하여서 씨의 빛은 천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높은 기개와 굳은 의지를 약여하게 하여주리라”는 편집자의 기대감이 표출되어 있다. 이에 부응하듯 이광수는 “비록 일천사백년전 사람이라하더라도 인정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옛날의 참된 젊은 남녀의 참된 생활 참된 사랑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찾아보”¹²⁾겠다는 창작의 변을 천명한다. 그러나 그 내막은 『麻衣太子』나 『端宗哀史』, 『李舜臣』과는 사뭇 달랐다. 『異次頓의 死』에서 조선인의 민족성 탐구는 사실상 부차적인 사안으로 다뤄진다. 오히려 이 작품에는 집단(조선민족)적 저항의 실효성에 대한 작자 이광수의 회의감이 짙게 배어 있다. 민족성을 개조하는 것만으로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의 자인과 함께 종교적이며 관념적인 차원에서의 현실 대응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 현실 정치 상황에 대해 외면의 형식을 빈 수용의 의사표현에 다름없었다. 제국담론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 놓기 위한 정치작업이었던 셈이다. 이렇듯 이광수가 새로운 정치 감각을 얻는 데 역사는 더없이 유용한 자산이었다. 그 전기가 된 창작상의 시연이 바로 『異次頓의 死』였던 것이다.¹³⁾

전시동원체제로 재편된 1940년대 전반기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정치담론에 긴박된다. 특히 개편된 편집체제를 통해 당시 일제의 신문저널리즘 정책을 이전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대변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신문연재소

12) 이광수, 「長篇小說 『異次頓의 死』」, 『조선일보』, 1935.9.27.

13) 김병길, 앞의 글, 151쪽.

설란은 단순한 대중독물의 게재 무대가 아닌 전시정책의 니팔수로 그 소임이 전변된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연재소설로서의 오락성이 전연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역사의 중요한 주인공으로서의 긍지(矜持)를 한아름 품고 역사가 전개시키는 광대한 무대와 역사가 등장시키는 못 인종을 머리에 그리며 이 비상시국에 처하는 일반대중”¹⁴⁾을 독자로 상정했으며, “재미있게 흥미있도록 여러분께 전하라는”¹⁵⁾ 의식은 여전히 강고했던 것이다. 총력전을 선동하는 국가담론의 서사가 대중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널리 읽히는 것이 절실하고도 우선적인 과제였기 때문이다.¹⁶⁾

박종화의 『多情佛心』(1940), 김동인의 『白馬江』(1941), 이광수의 『元曉大師』(1942), 이태준의 『王子好童』(1942), 박종화의 『黎明』(1943), 박태원의 『元寇』(1945) 등이 발표된 1940년대 유일한 한글중앙지 『매일신보』의 연재소설란에서 역사소설은 양적으로 여타 소설류를 압도했다. 이 시기 『매일신보』에 역사소설을 연재한 작가들은 당시 조선 문단을 대표하는 이들이었다. 연재의 주도권을 쥐 신문사는 독자의 흥미와 전시하 제국담론의 선전 효과를 연제작 선정의 제일 기준으로 고려했다. 연재에 앞서 “신체제에 적응하여 역사소설의 신기원(新紀元)을 만들거저 눈물겨운고심을거듭하여온”¹⁷⁾ 결과이자, “오늘날과 같은 시국하에서 희생과 봉공과 고행의 정신을 체득하는데 하나의 경전이 될 만한 귀한 작품”¹⁸⁾이라는 식의 광고가 공공연하게 내걸린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전시하의 우리들을 감격시킬뿐아니라 본밧고도 남을만한것이 잇슬것”¹⁹⁾을 찾는 데 역사가 용이한 출처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소설이 연재소설란을 장식할 최적의 상품으로 인정받은 것이다.²⁰⁾ 『元曉大師』의 연재 역시 이러한 배경

14) 「連載小説 『颯風』, 『매일신보』, 1942.11.12.

15) 「다음실을 長篇小説 『元寇』, 『매일신보』, 1945.5.15.

16) 김병길, 앞의 글, 62쪽

17) 「新連載夕刊小説 『白馬江』, 『매일신보』, 1941.7.8.

18) 「夕刊小説 『元曉大師』, 『매일신보』, 1942.12.24.

19) 「夕刊小説 『王子好童』, 『매일신보』, 1942.12.19.

20) 김병길, 앞의 글, 같은 쪽.

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단서를 다음의 예고광고에서 찾을 수 있다.

①—대성승(聖僧)이요 고승(高僧)인 『원효』의 생애를 주제(主題)에 올녀, 성(聖)과 인간이 서로 다투는 엄숙한 경계선에서 인정과 사상과 진리의 심오(深奧)한 세계를 작자의 원숙한 붓으로 그려갈 이 소설은 일대의 걸작(傑作)임을 의심치안는다²¹⁾

②나의 소설은 이 요석공주와의 인연을 맺는 것을 중심으로 원효대사를 그리는데 한편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때까지에 눈부신 화랑도(花郎道)와 무열문무의 양왕 김춘추(金春秋) 김유신(金庾信) 등의 어진 신하며 또한 절세의 미인으로 이름을 떨친 김유신의 모당 만명(萬明)을 비롯하여 당시 요란히 피엇던 신라미인의 모습을 더듬어가면서 일체유심(一切唯心)의 정신과 대승보살행(大乘菩薩行)의 정신-즉 멸사봉공하야 중생을 위한 생활에 나가던 당대의 사기를 총후독자에게 보내고저하는 바이다²²⁾

①은 『元曉大師』의 연재 예고광고에 실린 편집자의 글이고, ②는 같은 광고에 실린 ‘作者의 말’이다. ①에서 보듯이 신문사측은 『元曉大師』가 성인으로서 ‘원효’라는 인물의 내적 갈등과 그의 사상을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되리라 예고한다. 한편 작자 이광수는 ②에서 보듯 신문사측의 기대를 넘어선 창작의지를 표명한다. 일체유심과 대승보살행의 불교 정신을 멸사봉공의 자세로 전유하여 이를 당대 총후독자들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언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이광수는 원효와 동시대 인물들로 이야기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만명’을 비롯한 신라 미인들의 모습과 자취를 그리겠다는 것이다. 적잖은 비중의 로맨스 서사가 삽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21) 「二十八日 夕刊小説부터 連載—元曉大師, 『매일신보』, 1942.2.24.

22) 「“大乘菩薩行”의 眞髓—天衣無縫의 筆致로 엮어질 稀代の 力作—春園의 “元曉大師”, 『매일신보』, 1942.2.27.

이렇듯 『元曉大師』는 처음부터 제국담론의 선전물이면서 동시에 흥행성 높은 대중독물을 원했던 『매일신보』의 저널리즘에 적극 부응할 연재소설로 기획된 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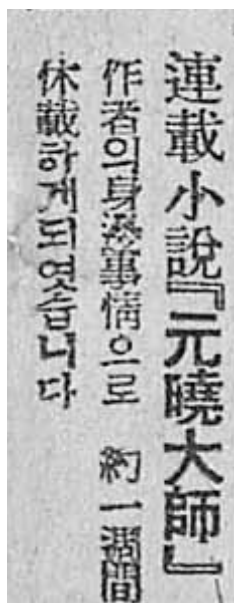
3. 로맨스와 활극의 불안한 동거

『元曉大師』의 서사적 특질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연재 종료와 관련하여 그간 간과되었던 사실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 작품은 1942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총 184회에 걸쳐 연재가 완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84회 말미에 ‘완(完)’ 또는 ‘끝’ 표기가 나와 있지 않으나 내용적으로 보아 완결되었다고 판정한 것이다.²³⁾ 그러나 이를 부정할 만한 기사가 184회가 연재되고 3일 뒤 게재되었다. [사진 1]의 기사가 그것이다. 이 기사는 작자의 신변사정으로 약 일 주간 휴재될 것임을 알리고 있다.²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元曉大師』의 연재는 계속될 예정이었던 셈이다. 물론 기사의 예고와는 달리 이후 『元曉大師』의 연재는 재개되지 않았다. 해당 지면에는 1942년 11월 7일부터 안희남의 단편소설 『아버지의 勝利』가 연재되었으며, 뒤 이어 1942년 12월 22일부터 이태준의 『王子好童』이 연재되었다. 『王子好童』의 연재 예고광고에서 이 일련의 변동 상황을 말해주는 내용이 확인된다. “춘원(春園) 향산광랑(香山光郎) 씨의 『원효대사(元曉大師)』의 뒤를 이어 상허(尙虛) 이태준(李泰俊)씨가 오래간만에 역사소설의 붓을들게되었습니다”²⁵⁾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23) 송하춘 편저,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590쪽.

24) 「連載小説『元曉大師』」, 『매일신보』, 1942.11.3.

25) 「夕刊小説 王子好童」, 『매일신보』, 1942.12.19.



[사진 1] 『元曉大師』의 연재 일시 중단을 알리는
1942년 11월 3일자 『매일신보』 사고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작품이 완결작으로 취급된 것은 해방 후 연재 판본을 바탕으로 단행본이 출간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1948년 단행본 『元曉大師』가 『생활사』에서 출간된다. 이병석이 새 철자법으로 수정하고, 이를 이광수가 감수한 판본이었다. 이렇게 출간된 단행본은 신문연재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장 구분의 경계가 일부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말 어원 관련 서술이 간결해진 점 등이 다를 뿐이다. 하여 이를 두고 개작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 그 차이가 전체 서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보기엔 미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의 불씨가 된 단행본의 서문 「내가 왜 이 소설을 썼나」를 뒷받침할 만한 의식적인 개작의 흔적이 딱히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단행본 출간을 통해 신문연재본의 오류나 산만한 서술을 바로잡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결정적으로 신문에 연재되지 않은 내용이 단행본에 추가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신문연재본과 단행본의 결말이 동일한 것이다.

결과만을 놓고 보면 『元曉大師』는 미완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은 『元曉大師』가 신문연재소설이었기 때문이다. 연재 중단 시점을 곧 연재 완결 지점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당시 신문연재소설계에서 그다지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이에겐 신문연재소설에 서사적 완결성을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요원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찍이 이태준이 신문연재라는 특수한 발표 형식 때문에 장편의 성격이 변질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전작소설(全作小說)로 명명된 장편 양식의 출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던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²⁶⁾ 『元曉大師』는 역으로 그와 같은 전작소설의 출현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킨 신문연재소설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단연 수위를 차지했던 역사소설이었다. 때문에 『元曉大師』의 완결 여부는 애써 따져 물을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작품의 연재가 돌연 중단된 사실이 문히고 당당히 한편의 완성작으로 대접 받아온 사정이 시사하는 바다. ‘소설의 본격적 요건이라 할 성격묘사나 사건구성 같은 것은 차치하고서 장면전환에 있어서도 성공한 예가 적 드문 당시 신문연재소설의 현실에서 그 새로운 탈출구로 전작장편 형태의 창작방식이 모색되었던 바’²⁷⁾, 『元曉大師』는 정확히 그 막힌 반대 출구에 자리한 작품이었다. 실제로 『元曉大師』는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독자 대중의 뿌리 깊은 인습적 관념 속에서 읽힐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그 자체로 신문사의 경영리적(經營利的)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상품성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었다. 그 단적인 자질이 바로 멜로드라마적인 면면이다.

식민시기 역사소설의 주요한 서사적 모티프의 하나는 낭만적인 로맨스, 곧 연애담이었다. 이 계보에 놓이는 텍스트들은 대개 삼각 혹은 사각의 남녀 간 애정갈등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의 비극성을 높이는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

26) 이태준은 신문소설과 순수한 문학으로서의 소설을 분리하여 연재조건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후자가 단편소설과 전작소설로 육성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태준, 「小說讀本」, 『女性』, 1938.7, 48쪽.

27) 최재서, 「連載小說에 對하여」, 『朝鮮文學』, 1939.5, 22-24쪽.

당시 신문연재소설 통속성의 진원지로 역사소설을 지목했던 논자들은 역사를 연애서사로 읽어낸 이 같은 일면을 꼬집은 것이었다. 『麻衣太子』와 『異次頓의 死』로 대표되는 역사소설 창작에 이광수는 연애담을 적극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전략은 『元曉大師』로까지 이어진다. 흥미롭게도 이광수의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대다수의 역사소설에서 연애담은 비적대적인 갈등을 거쳐 해소된다. 주인공을 미화하거나 영웅으로 형상화한 탓이 크다. 이때 애정갈등은 영웅적 인물이 자기완성의 지점을 향해 가는 데 정신적 성숙의 전기가 된다. 예컨대 이광수 역사소설에서 사적인 애욕은 종교 혹은 충이라는 형이상학적 가치로 승화된다. ‘마의태자’와 ‘이차돈’이 그 증인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른 인물이 ‘원효’였던 것이다.²⁸⁾

이광수는 『異次頓의 死』에서 중층의 삼각관계를 그려낸다. 그 하나는 ‘달남-이차돈-평양공주’의 구도이고, 다른 하나는 ‘이차돈-평양공주-거칠마로’의 구도다. 이 복수의 애정갈등은 연쇄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거나, 전체 서사를 구동해가는 원천이 된다. 한편 『元曉大師』에서 처녀 여왕 ‘승만مام마’는 병환이 심중해지자 원효를 청하여 법회를 열고 그간 혼자 쌓아온 사모의 정을 고백한다. 원효가 마음을 받아 줄 리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여왕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유다’에게 자신이 죽은 후 원효를 돌봐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며칠 못 가 여왕은 승하한다. 여왕의 유언이 있기 전부터 아유다, 곧 ‘요석공주’ 또한 원효를 사모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원효’는 요석궁에 끌려가다시피 하여 사흘을 보내고 마침내 파계에 이른다. 이후 요석공주는 또 한 번 원효를 두고 허구의 인물 ‘아사가’와 애정 경쟁을 펼친다. 『異次頓의 死』에서 익히 시도된 중층의 연쇄적인 삼각관계가 『元曉大師』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異次頓의 死』에 등장한 반동인물 ‘거칠마로’와 같은 경쟁자가 『元曉大師』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이 삼각관계의 연애담은 철저히 비적대적인 갈등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두 여인이 비구니가 되어 종교에 귀의하는 지극히 이상적

28) 김병길, 앞의 글, 144쪽.

인 결말로 마감된다.

삼각관계의 로맨스와 함께 『元曉大師』의 서사를 추동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활극이다. 원효가 거렁뱅이로 떠돌 때 그를 찾아 나선 길에서 요석공주는 도적떼를 만난다. 도적의 우두머리 ‘바람’은 요석공주의 미모에 반해 그녀와 아사가 일행을 납치하고, 그 사실을 원효에게 알린다. 이를 전해들은 원효는 도적의 소굴로 향한다. 도적떼에 붙잡힌 원효에게 바람은 요석공주와 아사를 바칠 항복문서를 작성토록 최후 통첩한다. 이에 원효는 다음과 같이 붓을 들어 답한다.

『菩薩變化 示現世間. 非愛爲本. 但以慈悲. 令彼捨愛. 假諸貪慾. 而入生死』

(보살이 사람을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 나는것은 애욕으로 그리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심으로 중생으로하여곰 애욕을 버리게하라고 모든 탐욕의 모양을 빌어 나고 죽는 중생이 됴이니라)²⁹⁾

위와 같은 글을 쓰고 원효가 붓을 던지자 향함에 남은 향이 저절로 타 향기가 법계에 차고 원효의 몸에서 환한 빛이 발한다. 이를 지켜본 바람은 원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흐느껴 울고, 다른 도적들도 일제히 칼을 던지고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바람과 도적 일당은 원효의 제자가 된다. 이후 나라에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왕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 받은 바람은 서당장군이 되고, 다른 두목들 또한 각기 군직을 받는다. 『元曉大師』의 후반부는 이처럼 원효가 요석공주 일행을 구하는 동시에 도적떼를 개심시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그 과정에서 원효는 끓는 기름가마 안에서도 태연히 앉아 도적 일당을 호통 치는가 하면 지팡이로 우물을 쳐 불을 만들어내는 등의 이적을 보인다. 흡사 고소설의 전기적(傳奇的)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 같은 활극의 화소(話素)에서 독자들은 일종의 기시감을 느꼈을 터, 앞선 창작 『異次頓의 死』에서도 이광수는 이

29) 春園, 『元曉大師』, 『매일신보』, 1942.10.31.

를 시현한 바 있다. 왕의 노여움을 사 고구려 임금의 목을 베어 오는 조건으로 죽임을 면한 이차돈이 임금의 동생 ‘선마로’와 간신 ‘공복’, ‘알공’ 등의 살해 음모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벗어나는 일련의 사건이 우선 그러하다. 신라에 돌아와 불법을 전하다 거칠마로의 칼에 최후를 맞는 순간 흰 피를 흘리는 이적 모티프 역시 『元曉大師』와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활극의 배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식민시기 역사소설이 무협소설로부터 차용한 흔한 기법 중의 하나였다. 일례로 1930년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김동인의 역사소설 『젊은 그들』은 극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작품은 연재예고에서부터 “대원군 시대(大院君時代)의 젊은사람들의 모험적호기심(冒險的的好奇心)과 연애(戀愛)를 배경으로 당시의 사회상(社會相)과 정치적문란(政治的紊亂)을 그려내려는 것”³⁰⁾으로 광고되었다.³¹⁾ 로맨스와 활극의 절묘한 결합을 통해 『젊은 그들』은 연재 당시 큰 인기를 누렸다.

원효의 행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元曉大師』는 허구의 연애담이 후경으로 밀려나는 지점에서부터 서사상의 균열이 발생한다. 즉, 연애담 중심의 전반부와 허구의 활극으로 전변한 후반부 서사의 성격이 전연 다른 것이다. 그것은 일차로 사료상의 단편적인 일화들을 긴밀히 엮어내지 못한 기법상의 미숙함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허구의 삽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듯 이광수는 『元曉大師』에서 불교 사상의 효과적인 전언을 위한 당의(糖衣)로서 로맨스와 활극을 서사의 외연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그 결과 서사 전개의 난맥상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이는 독자 대중에게 자미(滋味)를 선사하기 위해 치러할 마땅한 대가였다. 로맨스와 활극은 공히 대중성을 보증받기 위한 멜로드라마의 고전적 서사기법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매회 연재분이 하나의 기사 상품이었던 만큼 그와 같은 화소의 수용은 신문연재소설로서는 어찌 보면 불가

30) 「新連載小説豫告 長篇『젊은 그들』, 『동아일보』, 1930.4.15.

31) 작자 김동인은 작중 가공의 인물과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 작품을 역사소설이 아니라고 자평했다. 김동인, 「處女長篇을 쓰던 時節—『젊은 그들』의 回顧, 『朝光』, 1939.12, 230쪽.

피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고유미학인 양 고착되어 독자 대중의 기대지평으로 굳어지고 말았다는 데 있다. 『元曉大師』를 탐독한 독자 역시 그러한 서사기법에 익숙한 독법을 통해 역사 소비의 재미를 만끽하는 것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었을 터다.

4. 잃어버린 민족과 새로 찾은 국가

로맨스와 활극이라는 당의로 감싸고자 했던 『元曉大師』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삼각관계의 경쟁자였던 요석공주와 아사가가 함께 불도에 귀의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원효와 대립하던 바람과 도적 일당이 충성스런 신하로 다시 태어나는 결말에 이르러 당의에 가려져 있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난다. 요컨대 그것은 불교 사상과 충의 이념으로 압축된다 할 것이다. 이 같은 종교와 정치의 결합, 곧 정교일치의 이상세계의 구현으로 『元曉大師』의 서사는 낙착된다.

이광수는 이 『元曉大師』에서 민중불교의 초석을 놓았다는 기존의 역사적 해석과는 다른 각도에서 원효를 조명한다. 원효의 상모가 호국불교의 기초를 마련한 행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작품에서 종교적 깨달음과 신라를 향한 충의 이념이 원효에게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종교는 국가가 당면한 정치적 난제를 해결하는 통합의 구심체이자 원동력이 된다. 하여 이광수는 이 작품의 결말에 이르러 원효의 보살행을 자연스럽게 삼국통일의 토대로 귀결시킨다. 원효의 종교적 가르침에 감응하여 개과천선한 도적 우두머리들이 후일 백제 정벌에 앞장선 장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민족정체성 찾기에서 종교적 세계로 이광수 역사소설의 관심사가 변모했다고 보는 기존의 이해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異次頓의 死』(1935)와 『元曉大師』(1942)의 연재 중간에 이광수가 또 하나의 역사소설 『恭愍王』(『조선일보』, 1937. 5. 28-6. 10.)을 발표했던 사실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노국공주의 인산 이후 공민왕이 편조를 만나는 대목에서 연재

가 중단되었다. 때문에 이 작품에 장차 투사될 이광수의 역사의식을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목으로 내걸린 ‘공민왕’의 정치적 행적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었을 공산이 크다는 개연성 아래 보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광수의 역사소설 창작이 불교적 세계에 온전히 경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異次頓의 死』와 『元曉大師』를 근거로 그의 창작 경향의 선회를 설명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민족의식으로서의 회귀, 즉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색이 국권 회복을 향한 강렬한 열망의 표출로 이어졌다는 다소 무리한 해석을 가할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元曉大師』가 연재되기 이태 전 같은 지면에 발표된 다음의 글은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나는只今에 와서는 이러한 信念을 가진다 卽朝鮮人은 全然 朝鮮人인것을 이저 야한다고 아조 피와살과뼈가日本人이 되어버려야한다고 이속에 眞正으로 朝鮮人의永生의 唯一路가있다고 그럼으로 朝鮮의 文人乃至文化人의 心的新體制의 目的은첫째로 自己를日本化하고 둘째로는 朝鮮人全體를 日本化하는일에全心力을 바치고 셋째로는 日本의文化를昇揚하고 世界에發揚하는文化戰線의兵士가됨에있다.³²⁾

조선인에게 주어진 영생의 길이 조선인임을 온전히 망각함으로써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는 데 있다는 주장은 이 당시 이광수가 수용한 신체제 논리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논조는 내선일체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조선인 스스로 민족정체성을 방기할 때, 비로소 제국의 신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고를 내포한 것이기도 했다. 당대 조선의 문인 내지 문화인에게 이광수가 요구했던 심적 신체제의 목적은 일본의 문화를 양양하고 세계에 발양하는 문화전선의 병사가 되는 일이었다.³³⁾ 즉, “文化的 各部門은 全體主義, 國家主義를

32) 春園, 「心的新體制와 朝鮮文化의 進路」, 『매일신보』, 1940.9.12.

33) 김병길, 앞의 글, 155쪽.

基調로 하는 新體制에 參加하여야 할 것이며, 朝鮮의 藝術群도 內鮮一體의 旗幟下에서 國家를 爲해 그 步調를 가치 해야 할 것³⁴⁾이었다. 문인들에게 부여된 이러한 소임이란 실상 창작을 통해 표출되기 마련, 외견상 불교적 세계를 다룬 『元曉大師』는 그와 같은 담론으로부터 배태된 창작이었던 셈이다.

그렇듯 민족이라는 외피를 두른 채 제국의 이념을 수용함으로써 이광수는 내면의 분열을 잠정 봉합할 수 있었다. 『元曉大師』는 그 정신적 여정의 결정적 변곡점으로서 의의가 작지 않은 창작이었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이광수가 『元曉大師』를 통해 강조한 ‘충’의 의미는 너무나 자명하다. 조선 민족에 대한 개별적 상상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그 ‘충’은 결국 제국에 바쳐져야 마땅한 덕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판단대로라면 그것만이 신체제 하에서 조선인이 제국에 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元曉大師』의 ‘충’이 갖는 현재적 의의는 곧 ‘황국신민적 충의’가 되는 바, 이는 곧 ‘생명으로써 조국을 지킬 신념이자 열정³⁵⁾에 다름 아니었다. 일찍이 이광수는 천황귀일의 사상과 애국심을 ‘無上命法³⁶⁾으로 규정하며 스스로 내면화했다. 말하자면 “皇室을 비롯하여 臣民에 이르기까지 內地人과 朝鮮人의 피는 하나로 되어 있”다는 역사적 근거를 내세워 “天皇陛下의 臣民으로써 忠義를 다 하는자가 되어야 할”³⁷⁾ 사명을 조선 민족에게 요청했던 것이다. 『元曉大師』는 바로 그 역사적 전거로 제시된 대중적인 판본이었다.³⁸⁾ 실제로 미천한 중생들을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이끌어 나라에 봉공하도록 이끄는 일이 중생 제도의 길이라는 원효의 신념은 일본 국체(國體)에 대한 신앙, 즉 천황을 섬기는 한 방편으로 여겨지는

34) 春園, 앞의 글.

35) 香山光郎, 「兵役と國語と朝鮮人」, 『新時代』, 1942. 5, 18쪽.

“しからば皇國臣民忠義の精神とは何んであるか. それは
「天皇の臣民であつて, 日本はわが, 祖國である. われは生命を以てこの祖國を護るであらう」といふ信念のことである. 情熱のことである.”

36) 香山光郎, 「緊迫한 時局과 朝鮮人」, 『新時代』, 1941.9, 31쪽.

37) 이광수, 「新體制下の 藝術의 方向—文學과 映畫의 新出發」, 『三千里』, 1941.1, 253쪽.

38) 김병길, 앞의 글, 157-158쪽.

황민불교의 논리에 고스란히 상응한다. 원효의 대승보살행은 황민적 신앙의 실천이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³⁹⁾

이광수는 『元曉大師』에서 ‘원효’라는 역사적 위인과 스스로를 은연중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일련의 친일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원효를 종교적 인물로서보다는 현실 정치의 난관을 해결해가는 영웅적 존재로 부각시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다. 실제로 이광수는 친일로 비친 자신의 선택이 민족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데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이광수 스스로가 끊임없이 가한 최면이었을 수 있다. 하여 해방 후 쓴 『나의 고백』(춘추사, 1948)에서 이광수는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국의 감시에 숨겨야 했던 진의를 토로하듯 솔회한다. 결국 이광수는 식민시기 제국과 식민지 조선,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 받지 못할 회색지대에서 있었던 모양새로 남았다. 그가 끊임없이 민족을 말하였으되, 그 기표가 끌고 다니는 기의의 불온성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농후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민족이라는 이름의 큰 가면으로 얼굴을 치장했으되 정작 자신의 알몸은 가릴 수 없었던 이광수의 민족주의는 그렇듯 균열과 모순투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거렁뱅이 원효처럼 도처를 떠돌던 그의 이 민족주의가 마침내 도달한 지점이 『元曉大師』의 창작이었으니, 이광수에게 이는 잃어버린 과거의 민족을 불러내 새로운 국가를 찾고자 한 자전적 기록이라 할 것이다.

친일문학 일변도의 경직된 해석에서 한 걸음 물러나 논의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광수의 글쓰기 층위를 네 가지로 구분 및 범주화한 김윤식은 『元曉大師』의 원효를 자기 정당화 또는 변명의 형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⁴⁰⁾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방민호 역시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평가를 타진한다. 즉, 내선일체론을 뒷받침할 만한 담론적 논리를 제시하려는 의도, 그리고 민족 감정과 양심에 의한 균열로 조선인의 정체성에 대한 서

39) 최주한, 앞의 책, 167-168쪽.

40)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52쪽.

사가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오고만 결과 사이의 괴리가 『元曉大師』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작품은 보는 관점에 따라 ‘자기정당화’나 ‘변명’으로도, 민족주의적 가치를 의식적으로 추구한 창작으로도 읽힐 수 있다.⁴¹⁾ 식민기간 내내 민족과 제국 사이에서 표류했던 이광수의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이 같은 시각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독자로까지 그 스펙트럼을 확대할 경우 복수의 독해 가능성은 지지되고도 남을 일이다. 문제는 연재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元曉大師』가 신체제하 조선의 문화인이 수행해야 할 사명을 은유한 텍스트로 읽힐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렇게 읽었다는 사실에 있다.

작자 이광수의 심경을 대변하는 자기 가탁적 인물로 ‘원효’를 본다면, 춘원은 신체제의 목적과 민족주의 사이의 대립을 이 역사적 인물의 재현 과정에 투사한 것이라는 손쉬운 해석에 도달하게 된다. 말하자면 종교와 국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실증하는 존재로 과거의 ‘원효’를 현재에 소환한 셈이 되는 것이다. 화해가 요원하던 자신의 이념적 분열을 두고 역사적 위인의 행적을 역으로 더듬는 과정에서 이광수는 분명 그 봉합의 지점을 찾고자 했을 터다. ‘원효’를 종교적 구도자에서 나아가 정치적 인물로 재생시킨 의도가 신체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을 비롯한 조선의 지식인들이 따라야 할 전범을 제시하려는 데 있었다는 이야기다.⁴²⁾ 그러한 목적에서 발의된 창작의 전언력이 조선의 지식인과 독자 대중에게 얼마큼 미쳤는지는 이제 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중서사로서의 면면 덕에 이 작품이 장기간 연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독자 대중이 열독으로 답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이 작품에 내장된 제국담론 역시 독자 대중의 무의식에 암암리에 깊이 각인되었으리라 능히 짐작되고 남음이 있다. 전시체제하 대동아공영론의 니팔수로 변신한 연재소설란은 그렇듯 강력한 정치적 규제력을 지닌 제국담론의 선전장이었기 때문이다. 독자 대

41) 방민호, 앞의 글, 246-248쪽.

42) 김병길, 앞의 글, 155-156쪽.

중은 이를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혹은 그에 대한 암묵적 동의하에 해당 매체의 메시지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元曉大師』가 신문저널리즘의 기획에 십분 화답한 대중독물이었다는 판단은 결코 억측이 아니다.

5. 결론

민족적 관점에서 과거의 수난사를 제재 삼은 식민시기 역사소설들은 대체로 현실에 대한 우회적 반영과 그 극복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념적 편차는 결코 작지 않았다. 광의의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의 경우 민족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보이는가 하면 봉건적 충의사상을 옹호하는 데 바쳐지기도, 계급적 세계관과 착종되기도 했다. 그 이념적 진폭이 꽤나 컸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은 민족의 공동된 기원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 전제를 같이 했다. 일례로 이광수의 『異次頓의 死』에서 고구려의 재상 메주한가는 이차돈에게 고구려로의 귀화를 종용하며 세 나라가 본래 한 조상의 자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식은 이광수의 마지막 역사소설 『元曉大師』에서도 ‘진덕여왕’의 유언을 통해 재차 피력된다.

역사소설 창작 초기부터 이광수는 단일민족에 대한 상상에 기초하여 민족성 탐구를 민족의식 양양을 위한 선결과제로 파악했다. 그는 “민족의식과 민족애를 강조하며 민족운동을 찬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선동하는 데 창작의 의의를 두었”⁴³⁾이라고 공공연하게 천명했다. 신라의 몰락을 초래한 부패한 군신과 궁예의 입신 과정을 그린 그의 첫 장편 역사소설 『麻衣太子』(1926), 사육신의 충절 대 수양대군과 그 일파의 부도덕한 권력욕을 대비시킨 『端宗哀史』(1928),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이순신의 행적을 그린 『李舜臣』(1931) 등은 모두 조선인의

43) 이광수, 「余의 作家的 態度」, 『東光』, 1931, 84쪽.

민족성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작가의 말처럼 ‘조선인의 마음, 조선인의 장처와 단처를 밝히는 데’⁴⁴⁾ 서사의 초점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 그의 역사소설 창작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민족정체성 탐구에 종교적 관심이 더해진 것이다. 그 같은 경향은 『異次頓의 死』를 시발로 1940년대에 발표된 『世祖大王』과 『元曉大師』에 이르러 더욱 도드라진다. 결과적으로 정교일치의 세계를 지향한 이 일련의 역사소설 창작을 이광수는 제국주의 담론을 스스로 강화해간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광수의 이러한 역사소설 창작 여정에서 『元曉大師』가 지닌 독창적인 면모의 하나는 풍부한 우리말 어휘와 표현에서 발견된다. 이광수는 고유어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그 기원과 함의에 대해서도 장황한 서술을 늘어놓는다. 이광수 자신의 민족의식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증거인양 이를 설명하는 데 한 장을 온전히 할애하기도 한다. 우리의 옛말이 벌이는 이 영웅서사의 향연을 마냥 흥미롭게만 읽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제국담론과의 공모적 자장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민족’이라는 기표 뒤에 가려진 그와 같은 저류의 진실이 문득 고개를 드는 순간 역사소설로서 이 작품을 읽는 독자의 심사는 이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를 비롯한 오늘날 독자들의 사후적이며 편의적인 반응일 따름이다. 『元曉大師』의 신문 연재 당시의 독자로 되돌아간다면, 우리 역시 민족담론의 액면과 제국담론의 이면이 길항과 습합의 공정으로 엮어낸 이 삼각관계 로맨스 활극의 자미(滋味)에 한껏 취했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시간을 가로질러 역사소설의 충실한 독자가 되고자 한다면, 최소한 허구를 사실(史實)로 치환하는 글쓰기가 곧 역사소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각성의 끈만큼은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44) 이광수, 「小說豫告 『端宗哀史』」, 『동아일보』, 1928.11.20.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광수, 『元曉大師』, 『매일신보』, 1942.3.1-10.31.

_____, 『元曉大師』, 생활사, 1948.

_____, 『나의告白』, 춘추사, 1948.

『매일신보』, 『동아일보』, 『東光』, 『三千里』, 『新時代』, 『朝光』, 『朝鮮文學』, 『女性』

2. 단행본

곽학송·박계주, 『春園 李光洙-그의生涯·文學·思想』, 삼중당, 1963.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송하춘 편저,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아르준 아파두라이, 『고삐 풀린 현대성』,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4.

최주한,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Basic Books, 2001.

3. 논문

김병길, 「한국 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 박사논문, 2006.

박균섭,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통해 본 전시동원체제와 식민교육의 성격」, 『교육문제연구』 46집,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3, 103-127쪽.

방민호, 「이광수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정시학』, 서정시학, 2010년 겨울호, 219-248쪽.

윤영실, 「문학적 글쓰기와 민족의 공간: 조국, 신화세계, 변경」, 『한국현대문학연구』 26, 한국현대문학회, 2008, 99-125쪽.

이유진, 「이광수 작품에 있어서 과거와 정조 상실의 의미: 『원효대사』를 중심으로」, 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황중언,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라-현진건의 『무영탑』과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3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337-374쪽.

■ Abstract

How was read Kwangsoo Lee's historical novel
“WONHYODAESA(Great Master Wonhyo)”?

Kim, Byoung-gill

This study is on Kwangsoo Lee's historical novel “WONHYODAESA(Great Master Wonhyo)”. The prior studies have generally focused on text analysis referred to the biography of the author and topics review. Such studies show that the nature of this work is national epic and Empire epic, autobiographical epic and religious epic. Based on these premises they tried to analyze writer Kwangsoo Lee's schizophrenia or the view of his Buddhism. In fact this work is essentially a melodrama combined with romance and action. The thesis' purpose is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is work in view of a serial story in a newspaper as well as popular narrative. To that end, this study researched preferentially the general nature of newspaper serialization historical novel and it's consumption structure during colonial period of Korea. The conclusion is that this work is ten minutes in newspaper journalism of the response to poison the fact that the public. The conclusion is that this work is a popular story faithfully responding to the planning of newspaper journalism.

Key words: historical novel, romans, action drama, melodrama, newspaper journalism.

접수일: 2018년 4월 19일

심사일: 2018년 6월 19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20일